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적자본 투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 Focus on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석사 조경진**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
Master Cho, kyung-jin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
Professor Kim, Soon-Mi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Specifically,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and th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3rd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in 2009, and a sample of 757 households was selected. The statistical method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χ^2 ,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il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was 49.9% for the

* 본 논문은 석사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 조경진 (kyungevery@hanmail.net)

*** 교신저자 : 김순미 (kimsm@cnu.ac.kr)

middle-aged households. In terms of the types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the results showed 61.6% of personal preparation, 33.9% of pension system, and 1.3% for children and relatives. In relation to the adequacy of the preparations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preparations made by 57.4%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inadequate. Observing the minimum living costs for old age and adequate living costs after retirement for single and couple, the minimum living costs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as 1.46 million won for couple and 0.91 million won for single. The adequate living costs for old age was 2.07 million won for couple and 1.34 million won for single.

Second, there were 757 households with total education expenditure. Of these, 208 incurred annual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and the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was 7.28 million won. There were 170 households with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and the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was 2.50 million won. 243 households of middle-aged households had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with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of 7.82 million won. Furthermore, in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facto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according to their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based on their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Thir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1, which included human capital investment,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as follows : annual household income,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income, experience of inadequate living costs, existence of financial assets,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savings, financial independence, adequate living costs (for single) for old age, and human capital investment.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2, which included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and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as follows : annual household income,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income, experience of inadequate living costs, existence of financial assets,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savings, financial independence, adequate living costs (for single) for old age, and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Key Words : 중년기가계(Middle-aged households), 인적자본 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 노후준비(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노후생활비 준비(preparation for post-retirement living costs)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10년 7.6%에서 2050년 16.2%로, 선진국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10년 15.9%에서 2050년 26.2%가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0). 이에 비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앞서 2050년에는 38.2%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정일·이옥동, 2008).

노인인구의 증가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당면하게 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퇴직연령도 낮아져 50세 이상의 실업자 중 66%가 비자발적 실업일 정도로 취업구조와 고용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박창제, 2008). 한편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은퇴연령(2002~2007)은 평균 71.2세로서 OECD국가의 평균 63.5세에 비해 확연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남성의 공식은퇴연령이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노후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후 11.2년을 더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연합뉴스, 2011년 6월 12일에서 재인용).

통계청(2010)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55~79세 인구 중 60.1%가 취업을 원하며, 취업의 주된 이유로 56.8%가 생활비보탬을 들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1%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48%는 자녀(친척)도움이나 정부(사회단체)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 중년층의 실업 및 재취업문제가 노후의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8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율은 66.3%(통계청, 2010)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노후준비율은 33.8%(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 불과하여 많은 노인들이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만혼과 저출산으로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특히 개인 및 가계의 생애주기 동안 일어나는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녀교육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 즉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교육비지출을 증가시켜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공필·남재현, 2005; 최정일·이옥동, 2008; 현대경제연구원, 2009; 유경원, 2010).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줄이고 나아가 가계의 생활권을 침해하여 현재 재정상태뿐 아니라 미래 재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년기 가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면서 노후준비를 통해 노후대책을 세우고 재적응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홍성희·곽인숙, 2006).

노후준비를 할 때, 노후에 필요한 적정소득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후에 기대하는 생활수준, 현재소비생활, 직업, 가정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 기대여명, 물가상승률, 경제상황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후준비와 관련된 개념을 조작화하고 측정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노후가계의 경제구조나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들(이희숙, 1995; 김순미, 1998; 임경자, 2002; 배문조·전귀연, 2004), 노후대비의 결정과 노후대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홍성희·곽인숙, 2006; 박창제, 2008; 양세경·이성림, 2009; 이신영, 2009; 전귀연·배문조, 2010), 노후대비 적정성과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 대체율을 파악하는 연구들(안중범·전승훈, 2005; 여윤경·정순희·문숙제, 2007)이 있다. 그러나 중년기

가계의 교육비부담과 노후준비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소수의 연구들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한 요인으로 자녀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의 실태 및 준비방법을 파악하고 자녀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와 노후준비간의 관련성, 노후준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 및 가계가 자신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노후준비방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노후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본 투자에 초점을 두어 중년기가계의 교육비 지출여부에 따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고찰

1. 우리나라 중년기가계의 실태 및 특성

중년기는 개인적으로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를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 노년기의 전 단계이다(Chun et al, 2005). 중년기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연령범위로 규정된다. 통계청(2010)은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중년기를 64세까지로 보고, 국민연금법에서는 노인을 60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급여대상자, 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로 규정하고 있어 중년기를 59세까지로 본다. 또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어 중년기는 64세까지 해당되고 그밖에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중년기 연령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년기는 오랜 기간동안 만족할만한 경제적 생활수준

을 이룩하고 유지하는 것, 성인으로서의 사회적·시민적 책임감을 다하는 것, 10대 자녀들을 책임성 있는 성인이 되도록 돕는 것,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상호간 이해와 애정관계를 맺는 것, 여가활동을 개발하는 것, 노화되어 가는 부모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Havighurst, 1972; 이영주, 2010에서 재인용). 중년기의 특성으로는 ‘생산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체성’도 나타난다. ‘생산성’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도 타인과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침체성’은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려는 의지없이 이기주의의 고립 속에 갇혀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젊음과 노화를 통합하면서 노화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므로, 여생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제기된다(Erikson, 1976; 이영주,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년기는 인생전반에 대한 개방적 수용과 자기 확대로 인해 성숙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유안진, 1987)을 완수하는 동시에 은퇴준비를 통해 노후생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과제(홍성희·곽인숙, 2006; 손원, 2010에서 재인용)사이에서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2. 중년기가계의 경제적 노후문제와 노후준비

개인 및 가계의 성공적 노화는 노후문제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노후문제는 노후생활비가 중심이 되는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정서적·심리적 위축, 가족관계, 친구관계, 건강 및 여가생활 등과 같이 다양하다(배문조·전귀연, 2010). 그러나 학자마다 노후문제를 다르게 규정하여 김인숙(2004)은 노후문제를 경제적, 신체적 건강, 주거 및 여가준비로, 성말순(2004)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로 규정하고, 서전(2004)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문제로, 조추용·송미영·

이근선(2009)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문제로 보며, 전진우(2002)는 노후대책을 생활대책, 경제대책, 주거환경대책, 취업대책으로 보고 있다(신승희, 2010에서 재인용). 노후문제 중에서 특히 경제적 문제는 다른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년기가계는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 때문에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실제로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기 시작한 2010년 55~64세 인구의 73.9%와 65~79세 인구의 44.5%가 생활비 보탬을 이유로 장래 취업을 원하고 있고(고령자통계, 2010), 2010년 퇴직자들의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2009년에 비해 12.8%나 급증한 사실(중앙일보, 2011년 3월 28일)에서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 중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69.5%로, 그 중 61.9%는 노후준비 때문에 현재 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양세정·이성림(2008)은 은퇴 전 가구의 53.6%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고 특히 50대 이전가구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메트라이프생명에서 제시한 통합은퇴준비지수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준비도는 100점 만점에 62.22점으로 나타났다(경제투데이, 2012년 2월 2일). 한편 국민연금연구원(2009)에 의하면 현재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고령자들에게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를 질문한 결과, 68.2%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2010)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61%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41.4%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 노후준비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노후준비수단도 중요하다. 통계청(2010)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60.0%, 자녀나 친척지원이 31.4%, 정부 및 사회단체가 8.6%이

었다. 그 중 70세 이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또는 친척지원 비율이 본인 및 배우자 부담 비율보다 높았으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의한 방법은 줄어든 반면 연금, 퇴직금 등의 방법은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가구의 노후준비수단은 3층보장제도(three pillar system)로 구분된다. 먼저 1층보장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1층보장 부분이 한정적이어서 안락한 노후생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편 2층보장제도는 통상 소속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퇴직금)을 의미하지만 이것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3층보장제도인 개인저축(개인연금)을 이용하게 된다(김성민·길재욱·김현수, 2008). 이처럼 노후준비수단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기타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형태와 기타저축이나 퇴직금 등의 다른 사적 형태가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체계는 미흡하여 은퇴 후 연금소득 대체율은 국제권고수준인 70~80%보다 훨씬 낮은 45%정도이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김대환, 2011).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주된 노후준비수단은 국민연금 21.9%과 개인연금 20.9%, 부동산 20.1%, 보험 17.1%, 은행예금 및 적금 11.8%, 주식·채권 5.3%, 자녀지원 1.4%이었고, 국민연금연구원(2009)에 의하면 중·고령자는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우선순위로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과 근로활동을 통한 임금을 들었다. 특히 통계청 사회조사자료(2009)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후준비수단은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등의 연금제도 활용, 예·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및 채권 등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노후준비수단은 국민연금 29.6%, 예·적금 28.0%였지만,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준비능력이 없어

포기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여 특히 자녀의존 비율은 39.5%를 차지하였다.

노후준비율과 노후준비수단 외에도 노후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은퇴 후 노후생활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노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지영·최현자(2009)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재정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그들의 27.5%만이 현재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정운영·이희숙(2010)은 중·고령자 가계 중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인 가계의 80.7%가 노후 대비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는 노후에 예측되는 필요생활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월평균 109만원인데 비해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를 142만원(최소생활비 91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필요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하여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의 연구결과(중앙일보, 2012. 06. 28일자)에서 필요노후생활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후준비수단의 선택과 보유여부는 은퇴를 보류하고 노후생활비를 계속 마련해야 하는 은퇴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중년기가계의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와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생애주기 모형에 기반한 경제학적 개념이다. 생애주기 모형은 개인이 타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없이 경제적 생활을 시작하고 유산을 남기지 않고 경제생활을 끝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애주기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어린 시기에는 돈을 빌려 쓰고 근로 연령기에는 충분히 벌어서 벌린 돈을 갚고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여

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릴 때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용하여 학교를 마치고, 그 후에는 장기간 근로활동을 하여 부(주택, 은퇴대비 저축 등)를 축적하며, 일정 시기에 이르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근로시기에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다(Clark, Burkhauser, Moon, Quinn & Smeeding, 2004). 이처럼 생애주기 모형은 청·장년기에 근로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은퇴 후에는 과거의 저축자금을 소비하는데 충당함으로써 생애주기 동안의 소비와 저축행동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김연정, 1998).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부담 때문에 가용자원이 감소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박창제, 2008).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이 높고 조기 퇴직율의 증가로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우며 연금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양세정·이성림, 2009; 배문조·전귀연, 2010)에, 현재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켜 노후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이선형, 2009). 즉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로 인한 자녀의 성공정도가 부모의 노후를 결정한다는 성취지향적 성향(현대경제연구원, 2009)이 작용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 배경은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될수록 노동력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재적 미래 소득과 사회적 성취의 가능성은 향상된다(Marshall, 1956; Schultz, 1961; Mincer, 1962; Becker, 1981; 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에서 재인용). 즉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대가로 임금 격차를 만드는 것이다(Ehranberg & Smith, 1994). 따라서 인적자본 투자는 개인적, 또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소득보장을 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문숙재·이성은·양정선, 2007).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의 투자에 의해 생산성이 향

상될 수 있으나 하는 의문점과 교육이 인적자본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개인의 소득분배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제한점(Riley, 1979)이 있다. 이에 선별가설, 이중노동시장가설, 급진론 등이 대두되었다(박미희·여정성, 2000). 그중 대표적인 선별가설(Arrow, 1973)은 교육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교육에 의한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의 재능차이를 식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개인의 생산성은 교육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고용주에게 잠재적 생산성 수준을 알려 줌으로써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Layard & Psacharopoulos, 1974; 박미희·여정성, 2000에서 재인용). 이처럼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교육에 접근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투입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Mincer, 1979; 공은배 외 1985에서 재인용).

결국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에 기초한 자녀의 인적자본투자는 자녀의 미래 생산성, 즉 소득 증가를 위해 부모가 현재의 소비와 저축을 포기하는 부모의 경제적 선택을 유도하게 되어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예는 2011년 1/4분기, 우리나라 전국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교육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14.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전년도에 비해 60.8%의 증가율을 보여 가계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노후불안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통계청, 2011), 실제로 중년기가계의 재무적 의사결정이 대학교육비용과 은퇴자금에 의해 정해될 가능성이 높고 첫 자녀가 자신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은퇴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Todd & DeVaney(1997)의 연구,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위해 부모들이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Lee, Hanna & Sirigar(1997)의 연구에서 자녀교육비와 부모의 은퇴 및 노후준비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지만 빨리 퇴장하고 진입비율이 낮으며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아 노후준비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부말숙·김혜연, 2007;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그러나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와 은퇴소득의 적절성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김경희, 2005; Malrouit & Xiao, 2009). 한편 노년기에 가까워지면 노후준비율이 높아지며(강유진, 2005; 홍성희·곽인숙, 2006; 부말숙·김혜연, 2007;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가능성도 높아진다(안중범·전승훈, 2006). 그러나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경희, 2005)와 연령이 은퇴소득의 적절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Malrouit & Xiao, 2009)도 있다. 교육수준과 노후준비간의 관계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여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Morgan et al, 2004; 강유진, 2005; 부말숙·김혜연, 2007;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이소정, 2009; 이선형·최은희, 2010)과 교육수준이 노후준비 저축여부, 은퇴소득의 적절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김경희, 2005; 홍성희·곽인숙, 2006; Malrouit & Xiao, 2009)도 있다. 한편 직업과 노후준비의 관계에서 은퇴후 소득의 적정성, 은퇴 후의 노후준비 등은 은퇴전 일자리와 고용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이선

형·최은희, 2010), 직업이 있을 때 노후준비를 더 잘 하지만(박창제, 2008), 직업이 노후준비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홍성희·곽인숙, 2006)도 있어 직업 유무 및 유형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관적 건강이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보다 모든 영역에서 노후준비행동을 잘하였는데(배문조·전귀연, 2010), 이는 건강이 안정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한 이선형·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가계관련 요인

노후준비에 있어서 총자녀수, 배우자존재유무 등과 같은 가족 및 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자녀는 생활비 지출과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노후준비, 은퇴여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을 때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율이 높아진다(문숙재·김성희, 1995; 박진영, 2006; 부말숙·김혜연, 2007). 한편 배우자존재유무와 노후준비 간의 관계를 보면, 결혼 후 독신자가 된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노후준비를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배문조·전귀연, 2010),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차경옥·박미연·김연주, 2008).

3) 재정적 요인

McKenna와 Nickils(1988)는 재정적 요인이 노후계획에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소득은 노후준비와 정적 관계를 보여(이지은, 2002; 안중범·전승훈, 2006; 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노후준비 정도와 노후대비 저축율이 높고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수입이 노후준

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노후준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김경화, 2005;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도 있다. 한편 월평균 생활비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부말숙·김혜연, 2007; 진연주, 2009), 예기치 못했던 지출은 노후준비에 방해요인이 된다(Kemp et al., 2005). 또 지출과 관련된 걱정이 적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지만(홍성희·곽인숙, 2006), 재정적 요구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부실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선형·최은희, 2010).

중년기에 형성되는 자산은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홍성희·곽인숙, 2006),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가능성이 높으며(안중범·전승훈, 2006), 부동산자산 총액은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그러나 가계의 금융자산액과 실물자산액이 적을수록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도가 높다(문숙재·김순미, 1997)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한편 부채와 경제적 노후준비는 부적 관계를 보여(김문을, 2002),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며(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홍성희·곽인숙, 2006). 그러나 가구주의 부채가 많을수록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안중범·전승훈, 2006), 가계부채의 보유수준에 따라서 노후준비 여부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김경화, 2005; 양세정·이성림, 2009). 저축과 노후준비의 관계를 보면, 노후대비 저축율이 높은 집단은 노후 경제계획을 하는 경향이 높다(이지은, 2000). 그것은 중년기에 노후대비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집단의 경우 노년기에도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홍성희·곽인숙, 2006), 중년층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때문에 가용자원이 적다고 인식하여 노후준비가 소홀하게 되는

것(박창제, 2008)으로 볼 수 있다.

노후준비를 할 때, 경제적 독립성과 필요노후 생활비에 대한 기대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가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경제적 자신감이 높으며(양세정·이성림, 2009), 생활수준이 낮거나 사적지원에 의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 경제적 준비정도가 낮아(황승일, 2000), 경제적 독립성과 노후 준비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인적자본 투자 요인

중년기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으로는 교육비 지출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를 들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은 1990년 대비 2011년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6배 증가하여 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5.3%에서 7.8%로 늘었다. 또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8.3%에서 12.6%로 늘어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상의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에 빈곤한 생활을 하는 교육빈곤층 가구는 소비지출의 28.5%를 자녀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전체 교육비의 85.6%를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소비항목을 평균 이하로 지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가 7.0%로 OECD 평균 5.7%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민간 부담이 GDP의 2.8%로 OECD 평균 0.9%에 비해 높고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민간 부담은 정부 부담(0.6%)의 3배에 달하는 1.9%로 나타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기본생활권 침해와 노후대비 지출을 감소시켜 은퇴결정을 어렵게 만든다(이선형, 2009). 특

히 저소득층일수록 인적자본 투자로 인해 노후대비와 은퇴 의사결정을 보류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자녀부양책임을 결혼, 학업, 취업 시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의 의지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힌 보건복지부(2011)와 높은 수준의 교육비 부담이 현재 소비와 저축의 감소를 야기시켜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성림(2005)의 견해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중년기가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계관련 요인, 재정적 요인, 인적자본 투자요인 등의 독립변수를 정한 다음 종속변수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 및 필요노후생활비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실태, 인적자본 투자와 노후준비간의 관련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3.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및 측정도구

1) 자료 및 표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를 자료로 사용하였고, 표본추출을 위해 전체 개인조사대상자 7,022명에서 부모와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개인 3,282명을 선정한 다음, 중년기가계를 추출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주 888명을 추출하였다. 중년기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선행연구(Chun et al., 2005)에 기초하여 64세 이하로 정하였으며, 부실응답을 제외한 최종 표본으로 중년기가계 가구주 757명을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의해 선정된 독립변수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및 신체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고, 가계관련요인에는 총자녀수와 배우자 존재여부, 재정적 요인에는 가계총소득, 생활비 부족경험, 금융자산 유무, 부채 유무, 가계저축액, 경제적 독립성, 필요노후생활비, 인적자본 투자 요인에는 인적자본 투자 유무, 연간 공교육비 유무, 연간 사교육비 유무를 포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 가구주 연령과 교육수준은 년수로 조사하였고, 가구주 직업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그리고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 무직 등으로 분류된 것을 직업유무로 재분류하였으며, 가구주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는 1점부터 매우 좋다는 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가계관련 요인에서 총자녀수는 주부가 출산해서 생존한 자녀수로 정하였으며, 노후생활비 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배우자 존재유무를 포함하였다.

재정적 요인에서, 가계총소득은 지난 1년간(2008년 기준)의 총소득으로 보았으며, 생활비 부족경험은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의 경험여부로 보았다. 한편 금융자산 유무는 예·적금 잔고,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적립식 평가금액, 주식투자자금,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 아직 타지 않은 깃돈과 기타금융자산의 보유여부로 파악하였고, 부채 유무는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사채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임대료 받은 전세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깃돈, 빚의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신용카드 할부금액, 현금서비스 등의 보유여부로 판단하였으며, 가계저축액은 지난 1년간의 총저축액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독립성여부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성 여부로 보았으며, 필요노후생활비는 개인 및 부부의 최소노후생활비, 개인과 부부의 적정노후생활비로 측정하였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투자요인으로는 인적자본 투자 유무, 연간 공교육비 유무, 연간 사교육비 유무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간 공교육비유무는 지난 1년간 미취학 가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비동거가구원 포함) 등을 위한 초·중 고등학교 납부금은 물론 대학교, 대학원등록금을 포함한 학교납입금 금액의 유무로 보았고, 연간 사교육비는 지난 1년간 가구원의 개인교습비, 학원수강료, 문방구비, 교재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유무로 보았으며 이때 해외유학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송금한 교육비는 제외되었다. 한편 연간 공교육비와 연간 사교육비를 합한 연간 총교육비의 유무는 인적자본 투자 유무로 보았다,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는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Version 19.0)이며 기초분석을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의 분석을 위해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고, 연구문제2의 분석에서는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3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분석

(표 1) 중년기가계 및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중년기가계(757)	
		빈도	%
가구주 성별	남자	603	79.7
	여자	154	20.3
가구주 직업	유	598	79.0
	무	159	21.0
가구주의 배우자유무	유	641	84.7
	무	116	15.3
생활비 부족경험	유	370	48.9
	무	387	51.1
금융자산 유무	유	521	68.8
	무	236	31.2
부채 유무	유	486	64.2
	무	271	35.8
경제적 독립성여부	독립	490	64.7
	의존	267	35.3
연간 총교육비 유무	유	243	32.1
	무	514	67.9
	빈도	mean	S.D.
가구주 연령(세)	757	57.75	3.619
가구주 교육수준(년)	754	10.34	3.459
가구주 신체적 건강상태(점)#	754	3.33	0.937
총자녀수	757	2.45	0.902
연간 가계총소득(천원)	618	41,508.80	29,243.91
연간 가계저축액(천원)	347	2,726.50	5,168.87

1=매우 나쁘다, 2=나쁘다, 3=그저 그렇다, 4=좋다, 5=매우 좋다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4) 중년기가계 및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중년기가계의 가계 및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계관련 요인, 재정적 요인, 인적자본 투자 요인의 실태는 <표 1>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

학적 요인에서 가구주 성별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4배 정도 많아 79.7%를 보였고, 가구주의 평균연령과 교육수준은 각각 57.75세, 10.43년을 나타냈다. 또 가구주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79.0%였으며, 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3.3점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조금 나은 건강상태를 보였다. 한편 중년기가계의 총자녀수는 평균 2.45명이었으며, 가구주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84.7%를 나타냈다.

〈표 2〉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 실태

		중년기가계(757)	
		빈도	%
노후생활비 준비여부	준비	378	49.9
	준비하지 못함	379	50.1
노후생활비 준비유형#	개인적 준비	233	61.6
	연금제도 활용	140	37.0
	자녀 및 친지지원	5	1.3
노후생활비 준비방법의 충분성	충분함	161	42.6
	불충분함	217	57.4

노후생활비 준비유형

개인적 준비(일반적금 및 예금, 개인연금, 주식, 채권수익, 부동산투자, 근로활동, 사적보험)
 연금제도 활용(퇴직(연금), 본인/배우우자 공적연금(국민/특수)
 자녀 및 친지지원(자녀 및 친척이 주는 생활비, 용돈, 유산, 배우자소득, 기타 등)

재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연간 가계총소득이 있는 중년기가계는 618가구로 81.6%를 차지하였고 평균 41,508천원의 가계총소득을 획득하였으며, 중년기가계 중 생활비 부족경험이 있는 가구는 48.9%로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다. 중년기가계 중 금융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각각 68.8%, 64.2%를 보였고, 가계저축을 보유한 중년기가계는 347가구로 45.8%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평균 2,726.5천원을 저축하였다. 중년기가계의 경제적 독립성 여부에 있어서는 경제적 독립상태 비율이 64.7%, 의존상태 비율이 35.3%를 보여 독립상태의 비율이 의존상태 비율의 2배 가까이 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 실태와 필요노후생활비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를 보

면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비율이 49.9%로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노후준비율은 중년기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마련에 대한 압박, 지속되는 국내 경기불황 때문(경제투데이, 2012년 2월 2일)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 준비유형에서는 개인적 준비가 가장 많아 61.6%, 연금제도 활용 37.0%, 자녀 및 친지지원 1.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세대 758만명 중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3.8%인 256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만명은 연금소득이 없어 주택 등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연금제도 활용보다 개인적 준비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머니투데이, 2012년 6월 28일). 한편 노후생활비 준비방법의 충분성에서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57.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65세의 성인 중 29.1%가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노후대비를 할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양세정·이성립(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준비를 하려면 개인 및 가계가 원하

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산정해야 한다. <표 3>은 중년기가계의 가구주가 부부 또는 개인의 최소노후생활비와 적정노후생활비를 산정한 표이다. 먼저, 중년기가계의 가구주가 기대하는 부부기준의 월평균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1,461천원, 개인기준의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915천원으로, 개인기준의 최소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의 최소노후생활비의 62.6%를 나타냈다. 또 중년기가계의 가구주가 예상하는 부부기준 및 개인기준의 월평균 적정노후생활비는 각각 2,074천원, 1,336천원으로, 개인기준의 월평균 적정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의 54.7%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실시한 국민연금실태조사에서 가구주가 생각하는 개인기준의 적정노후생활비와 최소노후생활비가 각각 1,796천원, 1,166천원, 부부기준의 적정노후생활비와 최소노후생활비가 각각 2,795천원, 1,847천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중년기가계의 개인기준 최소노후생활비와 적정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최소노후생활비와 적정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년기가계가 예상하는 부부기준 최소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적정노후생활비의 70.4%, 개인기준 최소노후생활비는 개인기준 적정노후생활비의 68.5%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개인이나 부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표준생활비의 2/3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노후생활을 위한 최저생활과 표준생활의 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노후 준비 실태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는 노후준비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는 가족구성원, 특히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 즉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볼 수 있다. 이에 중년기가계의 총교육비,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로 구분하여 인적자본 투자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총교육비를 지출하는 중년기가계는 243가구로 32.1%를 차지하였고 그들의 연간 총교육비는 평균 7,820천원이었다. 또 중년기가계 중 공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27.5%였으며 연간 7,276천원을 지출하였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22.5%로 평균 2,501천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가계의 연간 가계총소득이 41,508천원이고 그 중 연간 총교육비를 위해 지출하는 비율이 18.8%에 달하고 있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총교육비 지출에 근거하여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투자 비율이 1/3수준을 보인 결과는 가구주 연령이 57.75세로 높기 때문에 중등학교 재학자녀보다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녀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있으며, 중년기

<표 3> 중년기가계의 필요노후생활비

필요노후생활비(천원/월)	빈도	중년기가계(757)	
		평균	표준편차
부부기준 최소노후생활비	756	1,460.58	675.87
개인기준 최소노후생활비	755	914.77	417.59
부부기준 적정노후생활비	756	2,074.47	947.63
개인기준 적정노후생활비	755	1,335.76	614.24

〈표 4〉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실태

		중년기가계(757)	
		빈도	%
연간 총교육비 지출유무	유	243	32.1
	무	514	67.9
연간 공교육비 지출유무	유	208	27.5
	무	549	72.5
연간 사교육비 지출유무	유	170	22.5
	무	587	77.5
빈도		mean	S.D.
연간 총교육비(천원)	243	7,820.13	5,907.97
연간 공교육비(천원)	208	7,276.17	5,491.00
연간 사교육비(천원)	170	2,501.22	2,733.78

〈표 5〉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노후생활비 준비가계(378)		노후생활비 미비가계(379)		χ^2
		빈도	%	빈도	%	
연간 총교육비(천원)	유	134	55.1	109	44.9	3.886 *
	무	244	47.5	270	52.5	
연간 공교육비(천원)	유	116	55.8	92	44.2	3.906 *
	무	262	47.7	287	52.3	
연간 사교육비(천원)	유	90	52.9	80	47.1	0.793
	무	288	49.1	299	50.9	

가계에서 대학교육비와 같은 공교육비 지출이 최고 수준에 이른다라고 밝힌 양세정(200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중년기의 자녀부양에 대한 지나친 책임의식이 노후저축, 노후준비를 하는데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현대경제연구원, 2009; 김미혜, 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중년기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따라 노후준비 여부가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것으로, 이때 노후준비는 노후생활비를 준비한 가계와 준비하지 못한 가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간 총교육비의 지출유무에 따른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공교육비의 지출유무에서도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교육비 및 총교육비 지출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의 부담이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어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차에 걸친 로지스틱 분석을

〈표 6〉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Logistic분석

	연구모델1-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757)		연구모델2-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757)	
	B	S.E	B	S.E
가구주 성별(남자)	.091	.288	.140	.285
가구주 연령	.052	.028	.042	.026
가구주 교육수준	.082	.070	.093	.069
가구주 직업(유)	-.305	.242	-.315	.242
가구주 신체적 건강상태	.077	.102	.074	.102
총자녀수	.072	.102	.089	.102
배우자 존재유무(유)	.150	.318	.160	.317
연간 가계총소득	.000 **	.000	.000 **	.000
생활비 부족경험(유)	-.395 *	.187	-.368 *	.184
금융자산 유무(유)	.836 ***	.208	.839 ***	.209
부채 유무(유)	-.222	.192	-.243	.193
연간 가계저축액	.000 **	.000	.000 **	.000
경제적 독립성 여부(독립)	1.665 ***	.207	1.688 ***	.207
적정노후생활비(개인기준)	.000 *	.000	.000 *	.000
인적자본 투자유무	0.407 *	.210	-	-
연간 공교육비지출 유무	-	-	.589 *	.311
연간 사교육비지출 유무	-	-	.410	.403
constant	-6.268 ***	1.700	-5.745 ***	1.642
-2log likelihood	784.284		783.662	
Chi-square	260.960 ***		261.582 ***	

* p < 0.05, ** p < 0.01, *** p < 0.001

실시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연구모델1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여부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연구모델2에서 다시 공교육비 지출유무와 사교육비 지출유무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는 모두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를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로 보고 노후생활비를 준비함은 1, 준비하지 못함은 0으로 보았다. 또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의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신체적 건강상태를, 가계관련 요인에서

는 총자녀수, 배우자 존재여부, 재정적 요인에서는 가계총소득, 생활비 부족경험, 금융자산 유무, 부채 유무 및 경제적 독립성 여부, 가계저축액을 포함하였다. 또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필요노후생활비(부부 및 개인기준 노후최소생활비, 부부 및 개인기준 노후적정생활비)를 포함하였다. 인적자본 투자요인은 연구모델 1에서 인적자본 투자여부로, 연구모델 2에서는 공교육비 지출유무와 사교육비 지출유무로 보았다.

로지스틱 분석에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고, 이때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난 부부 및 개인기준 최소노후생활비와 부부 기준 노후적정생활비를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에서 제외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모델 1의 로지스틱 결과를 보면, 중년기가계의 노후생활비 준비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간 가계총소득, 생활비 부족경험, 금융자산 유무, 연간 가계저축액, 경제적 독립성 여부, 개인기준 노후적정생활비, 인적자본 투자유무였다. 즉 중년기가계의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생활비부족을 경험한 가구는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낮았다. 특히 소득과 노후준비간의 관련성은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가구보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난 양세정·이성림(2009)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을 수 있다. 또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더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고, 연간 가계저축액이 많을수록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을 인지하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좋거나 경제적 독립을 인지하는 가구가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후대비를 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자신감이 높다는 양세정·이성림(2009)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홍성희·곽인숙(2006)의 연구결과와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개인기준의 적정 노후생활비를 높게 산정할수록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후준비의 의욕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 투자에서는 인적자본 투자를 하는 가구가 투자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중년층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보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역할수행을 더 크게 인식하는 인적자본 투자 성향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과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김순미·고선강, 2012)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델 1에서 인적자본 투자가 노후생활비 준비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델 2에서 공교육비 지출유무와 사교육비 지출유무를 구분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년기가계의 노후생활비 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간 가계총소득, 생활비부족경험, 금융자산 유무, 연간 가계저축액, 경제적 독립성 여부, 개인기준 노후적정생활비, 공교육비 지출유무로 나타났다. 먼저 중년기가계는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생활비부족을 경험한 가구는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확률이 낮았다. 또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간 가계저축액이 많을수록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경제적 독립성 여부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인식하는 가구가 경제적 의존가구에 비해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남편의 퇴직금이 많을수록 노후대비 지출항목수가 많아져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송혜림(1998)의 연구에서 보인 남편퇴직금이 갖는 경제적 독립성 개념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기준 노후적정생활비와 관련하여 노후적정생활비가 높을수록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중년기가계 중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경제적 준비요구도가 높아질수록 노후대비 지출범위가 커진다는 송혜림(1998)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교육비를 지출하는 중년기가계에서 공

교육비를 지출을 하지 않을 때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가 공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압박감을 더 많이 느껴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재정적 요구로 인한 부담이 노후보장을 소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송혜림(199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중년층의 노후생활비 준비도가 높다고 한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적자본 투자 변수를 포함한 연구모델1과 공교육비 지출변수 및 사교육비 지출변수를 포함한 연구모델2의 분석결과에서 인적자본 투자여부는 노후생활비 준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교육비 지출유무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가 노후준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위해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중년기 가계의 가구 주 757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및 필요노후생활비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년기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실태, 인적자본 투자와 노후준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또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계관련요인, 재정관련 요인, 인적자본 투자요인이 노후생활비 준비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1에서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 및 필요노후생활비 실태를 파악한 결과,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 가구는 49.9%였으며,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유형은 개인적 준비가 61.6%,

연금제도의 활용이 37.0%를 보였다. 또 노후생활비 준비방법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중년기 가계의 57.4%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중년기 가계의 가구주가 기대하는 부부기준 및 개인기준의 월평균 최소노후생활비는 각각 1,461천원, 915천원이었으며 개인기준의 최소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의 62.6%를 나타냈다. 또 부부기준 및 개인기준의 월평균 적정노후생활비는 각각 2,074천원, 1,336천원으로, 개인기준의 월평균 적정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의 54.7%를 나타냈다. 이처럼 중년기 가계가 산정하는 개인기준 최소노후생활비와 적정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부기준 및 개인기준의 최소노후생활비는 적정노후생활비의 70.4%, 개인기준 최소노후생활비는 개인기준 적정노후생활비의 68.5%를 보인 결과는 중년기 가계가 노후생활을 준비할 때 최저생활과 표준생활의 지침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2의 분석에서 중년기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실태를 보면, 중년기 가계 중에서 총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243가구, 공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208가구,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170가구로 나타났다. 또 인적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중년기 가계의 연간 총교육비는 평균 7,820천원, 연간 공교육비는 평균 7,276천원, 연간 사교육비는 평균 2,501천원을 지출하였다. 특히 중년기 가계의 연간 가계총소득 중에서 총교육비의 지출비율이 18.8%인 점은 중년기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인적자본 투자요인 중 연간 총교육비 지출유무, 연간 공교육비 지출유무에 따라 노후준비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중년기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노후준비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인적자본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재정, 저축과의 균형 및 비율을 고려한 영향력에 근거하여 노후준비 여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의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델1에서는 인적자본 투자 변수를, 연구모델2에서는 공교육비 지출유무와 사교육비 지출유무를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 연구모델1의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연간 가계총소득, 생활비 부족경험, 금융자산 유무, 연간 가계저축액, 경제적 독립성 여부, 적정노후생활비, 인적자본 투자유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중년기가계의 연간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비부족 경험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연간 가계저축액이 많을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개인기준의 적정노후생활비를 높게 산정할수록, 인적자본 투자를 한 경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모델2의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중년기가계의 연간 가계총소득, 생활비 부족경험, 금융자산 유무, 연간 가계저축액, 경제적 독립성 여부, 적정노후생활비, 공교육비 지출유무 등의 변수가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간 가계총소득, 금융자산 보유, 연간 가계저축액, 경제적 독립성, 개인기준의 적정노후생활비, 공교육비 지출여부는 중년기 노후준비 여부에 정적 영향을, 생활비부족 경험은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가계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와 공교육비 지출유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인적자본 투자요인과 관련된 자녀 및 가족관련 변인, 재정상태 및 저축관련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노후준비의 개념과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의 노후생활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개인과 가계가 인식하는 노후준비의 개념과 준비방법

은 생애주기마다 다르고, 노후준비의 주체, 노후준비의 시작시기, 노후준비의 기준 등도 다양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후준비의 개념과 척도를 다각화하고 연구모형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계관련 요인, 재정적 요인, 인적자본 투자 요인 외에도, 인적자본 투자의 요인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등을 포함한 정보,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망 은퇴연령,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노후생활비에 대한 자녀지원, 노후생활문제 인식(여가, 주거, 소일거리, 사회적 관계 등) 등을 고려한 연구모형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노후준비의 문제는 생애주기에 걸쳐 장기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기에 당면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만족할만한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진행과정과 시차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노후준비 방법도 다양하며, 이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간적 흐름의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노후준비의 생애주기적 분석, 단기적 및 장기적 노후준비의 상호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유의한 변수 중, 인적자본투자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후속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적자본 투자의 유형, 투자시기 및 방법 등은 노후생활비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 투자여부, 투자 내용 등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구분은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

생활비 준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인적자본 투자요인의 기초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노후준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필요노후생활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노후준비와 관련된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최소노후생활비와 적정노후생활비의 산정 및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재정상태에 맞는 노후준비 결정과 다양한 노후준비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05). 한국 성인 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2) 국민은행(2009). 2008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 3) 국민은행(2012). 고령화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2012).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년 6월 보고서.
- 4) 김경화(2005).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대환(2011). 은퇴자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보도자료 10-29호. KiRi보험연구원.
- 6) 김문을(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성민·길재욱·김현수(2008). 생활재무관리(개정판). 서울 : 경문사.
- 8) 김순미(1998).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9) 김순미(2004). 도시가구의 연금에 관한 연구 : 홀별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11), 205-222.
- 10)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11) 김순미·양정선(2004). 도시근로자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37-51.
- 12)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 재정상태의 구조적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인숙(2002).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경제투데이(2012).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준비 '낙제점' 자금압박 지속돼. 2012년 2월 2일자.
- 15) 머니투데이(2012). 집값 또 폭락? “조만간 500만명 집팔려고”. 2012년 6월 28일자.
- 16) 매일경제(2011). 베이비붐세대 83%퇴직 후 대책 없다. 2011년 2월 14일자.
- 17)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18)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19) 문숙재·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복지의 예측. 소비자학 연구, 12(1), 115-131.
- 20) 문숙재·이성은·양정선(2007).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43-57.
- 21)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22) 박진영(2006). 자산계층별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의 관련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61-77.
- 23)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24) 반정호(2009). 노년기 소득불평등 국제비교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3월호.
- 25)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27) 배문조·전귀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 28) 보건복지부(2007). 한국노인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 29) 보건복지부(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
 - 30) 부말숙·김혜연(2007). 은퇴 후 노후생활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 30,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07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
 - 31) 삼성경제연구소(2007).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 :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제 96호.
 - 32) 서전(1992). 중년기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성말순(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손원(2010). 중년기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분석 : 부부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송혜림(1998). 중년기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33-149.
 - 36)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안중범·전승훈(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채용. 한국경제연구학회지, 한국경제연구 제15권, 5-33.
 - 38) 안중범·전승훈(2006).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 :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따른 분석.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11(2), 123-149.
 - 39)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9(2), 173-190.
 - 40) 양세정·이성림(2008). 주관적 노후대비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한국FP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2008춘계), 1-20.
 - 41) 양세정·이성림(2009). 노후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16.
 - 42) 여성신문(2012). 세계 최대 소비국 미국보다 저축안하는 한국. 2012년 6월 1일자.
 - 43)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44) 유경원(2010). 우리나라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KiRi보험연구원 보도자료. KiRi보험연구원. 2010년 4월 22일자.
 - 45) 유안진(1987). 인간발달신강. 서울 : 문음사.
 - 46) 이선형(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20-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43-64.
 - 47)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48)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49)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과학논총 28(1), 205-224.
 - 50) 이영주(2010).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도와 노화불안.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1) 이지영·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

- 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9(1), 215~230.
- 52)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3) 이채우(2007).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4) 이투데이(2012). 국민연금만 믿으면 큰일, 多(다)연금 시대 준비해라. 2012년 11월 7일자.
- 55) 이희숙(1995).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행태와 은퇴 후 가계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6(1), 41-56.
- 56)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7) 정경희(2009).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및 복지욕구. 보건사회연구원.
- 58) 정운영·이희숙(2010). 중·고령자 가계의 주관적 노후대비충분여부에 따른 부동산 자산구조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8(4), 1-12.
- 59)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지, 통권 43호, 135-156.
- 60) 중앙일보(2011). 생활고 55세 베이비부머들 국민연금 독배 드나? 중앙일보 2011년 3월 28일자.
- 61) 중앙일보(2012). 베이비붐 500만명 노후준비 부족 : 주택 처분 불가피. 2012년6월28일자.
- 62) 최공필·남재현(2005).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금융조사보고서 7.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 63) 최정일·이옥동(2008).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노령화 진행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자산운용의 변화. 아시아-유럽미래학회, 5(3), 1-19.
- 64) 통계청(2006). 2006 장래인구추계. www.kostat.go.kr.
- 65) 통계청(2009). 2009 사회조사자료. www.kostat.go.kr.
- 66) 통계청(2010). 2010 고령자 통계. www.kostat.go.kr.
- 67) 한국경제(2012). 2차 베이비부머 절반“은퇴준비못하고 있다”. 2012년 11월 6일자.
- 68) 한국교육개발원(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제8권 제 2호(통권 제 106호), 2011.5일 출판.
- 69) 한국일보(2012). 너무 낮은 저축률 문제는 없을까. 2012년 7월 28일자.
- 70) 한겨레신문(2011). 가구절반이 연소득 20%들여야 동북극 총당. 2011년 6월 1일자.
- 71) 현대경제연구원(2007). 사교육·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현대경제주평. 2007년 4월 27일자.
- 72) 현대경제연구원(2012).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 40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크다. 한국경제주평. 12-31(통권 제 502호). 2012.8.24일자.
- 73)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74) 황명진(2011). 은퇴여부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연구 : 중·고령자(50~64세)를 중심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심포지엄논문집 255-293.
- 75)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6) Arrow,K.(1973).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3), 193-216.
- 77) Chun, S.Z., G.M., Park, J.S., Lee, M.F.,k Cho, K.S., Kim, H.K.(2005). Medical &

- surgical nursing, Seoul; Hyunmoonsa
- 78) Clark, R. L., R. V. Burkhauser, M. Moon, J. F. Quinn & T. M. Smeeding(2004). *The Economics of an Aging Society*.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 79) Kelly, J. Todd and Sharon A. DeVaney. (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8(1), 25-32.
- 80) McKenna, J.S. & Sharon Y.Nickils.(1988). Planning for retirement security : What helps or hinders women in the middle yea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2), 153-164.
- 81) Morgan, L.A. & Eckert, J.K.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 Implication?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 19-34.
- 82) Riley, J.C.(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281-302.
- 83) Schultz, Theodore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 84) Seonglim Lee, Sherman Hanna & Mulya Siregar.(1997). Children's College As A Saving Goal.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8(1), 33-36.
- 85) Xiao J.J., Tang C., & Shim S.(2009). Acting for happiness : Financ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 투 고 일 : 2012년 9월 2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0일